

KIA 외국인 투수 잔혹사 끝?...동반 상승하는 크로우·네일

크로우 평균자책점 2.61·네일 1.14 대활약

다승 공동 1위...벌써 8승 합작 원투펀치 위엄

KIA 타이거즈가 지긋지긋한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끊어내려 한다.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30)와 제임스 네일(31)이 맹활약을 펼치며 KIA 고공행진의 중심에 서 있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크로우, 네일과 손을 잡으며 1~2선발을 재편했다. 두 선수 모두 미국 메이저리그(MLB) 경력을 보유한 오른손 투수다. 더욱이 시속 150km를 상회하는 빠른 공을 구사하는 공통점도 있다.

에이스 임무를 맡은 크로우는 시즌 초반 제뿔을 해주지 못했다. 3월 2경기에서 10이닝 12피안타(2피홈런) 10실점(9자책)으로 부진하며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4월 들어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4경기에서 전부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3승 21탈삼진 평균자책점 0.00(21이닝 비자책)

으로 맹위를 떨쳤다. 지난 23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5이닝 7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을 작성하며 팀 연장승(5-2)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2.61까지 낮췄다.

시범경기에서 평균자책점 5.23에 그쳤던 네일은 정규 시즌에서 무서운 기세로 승수를 쌓고 있다. 이번 시즌 5경기에 등판해 31%이닝을 던지며 4승 35탈삼진 평균자책점 1.14로 위용을 뽐냈다. 평균자책점 1위, 크로우와 함께 다승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에릭 페디(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변형 슬라이더인 스위퍼를 앞세워 KBO리그를 정복했다면, 올해는 네일의 스위퍼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페디의 스위퍼 못지않게 빠르게 예리하게 휘다. 이

윌 크로우



는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구종 중 하나가 됐다.

KIA는 지난 3년 동안 외국인 투수들의 잇따른 부진으로 한 차례만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았다. 총 9명의 외국인 투수가 뛰었으나 2021년 다니엘 멩덴과 2022년 선 놀린이 수확한 8

승이 최다승이었다. KIA에서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승리를 따낸 외국인 투수는 2020년 11승씩을 거둔 애런 브룩스와 드류 가논이다.

그러나 올 시즌 크로우와 네일이 벌써 8승을 합작하는 등 원투펀치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토마스 파노니(6승)와 손 엔



제임스 네일

더슨, 마리오 산체스(이상 4승), 아도니스 메디나(2승)가 합작한 16승을 훌쩍 뛰어넘을 기세다. 크로우와 네일이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린다면, KIA에서 4년 만에 10승 외국인 투수가 나올 수 있다.

이슬비기자

패하면 올림픽 탈락...황선홍 vs 신태용 '단두대 매치'

26일 오전 2시30분 U-23 아시안컵 8강전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 놓고 한국-인도네시아 맞대결



황선홍 감독(왼쪽)과 신태용 감독

한국인 지도자 두 명이 2024 파리 올림픽으로 가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한국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과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맞대결을 벌인다. 패배하면 탈락하는 매지업을 펼친다.

한국은 오는 26일 오전 2시30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인도네시아와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 경기를 소화한다.

조별리그 B조에서 '라이벌' 일본까지 물리치고 3연승을 달리며 조 1위로 8강에 오른 황선홍호는 A조에서 2승1패로 호주를 누르고 2위 자격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신태용호와 격돌한다.

패배하면 대회 탈락과 동시에 파리 올림픽 진출권이 날아간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총 16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4위를 기록하면 아프리카 예선 4위 팀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른 후 승리해야 파리로 갈 수 있다.

즉, 최소 4위를 기록해야 파리행을 노릴 수 있는데 8강에서 탈락하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끄는 두 팀 중 하나는 무조건 파리올림픽이 불발되는 잔인한 상황을 맞았다.

전력, 전력 등으로 보면 한국의 승리가 예상된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양현준(셀틱), 배준호(스토크시티), 김지수(브렌트포드) 등 유럽과 3인방이 모두 소속팀의 차출 반대로 합류가 불발되는 변수를 맞아 100%의 팀을 꾸리지 못했으나, 개개인의 역량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보다 앞선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역대 맞대결에서도 지금까지 U-23 대표팀은 인도네시아를 5회 만나 전승을 거두는 등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10회 연속이라는 올림픽 본선 진출 세계 신기록 경신 목표도 있어, 동기부여 측면에

서도 한국이 앞선다.

다만 인도네시아에는 경험이 풍부한 신 감독이 있다.

신 감독은 한국 A대표팀 감독을 이끈 바 있다. 2014년 대행 신분으로 팀을 맡은 뒤 2017년 정식 감독으로 부임해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을 함께 했다.

지난 3월 A매치 당시 임시로 한국 A대표를 이끈 황 감독보다 다양한 지도 경험이 있으며, 누구보다 한국 축구를 잘 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는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또 이번 대회 상승세도 남다르다. 선수 퇴장 변수를 맞아 0-2로 패배한 1차전 카타르와의 경기 외에는 전부 승리했다. 특히 2차전에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호주를 1-0으로 꺾었다. 그리고 3차전에서 요르단을 4-1로 대파하는 등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처음 U-23 아시안컵 본선에 오른 인도네시아는 역대 최초로 8강까지 진출했다. 이 기세가 한국전까지 이어지면 황선홍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남자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건 지난 1956년 멜버른 대회에 마지막이다. 한국을 꺾는다면 무려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나설 기회를 잡게 된다.

한국이 신태용호의 이변을 잠재우고 10회 연속 본선 진출 가능성을 키울지, 인도네시아가 황선홍호까지 꺾는 이변을 연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고우석, 마이너리그 더블A서 첫 홀드...1이닝 무실점

8회 등판 삼자범퇴...평균자책 6.00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인 샌안토니오 미션스에서 뛰는 고우석(26)이 시즌 첫 홀드를 달성했다.

고우석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벨스 울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위치타 윈드 서저(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더블A)와의 경기에 구원 등판해 1이닝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직전 등판에서 시즌 두 번째 불론 세이브(세이브 실패)를 떠안으며 패전 투수가 됐던 고우석은 이날 흐름 전환에 성공했다. 1이닝을 깔끔히 막고 더블A에서 첫 홀드를 수확했다.

팀이 1-0으로 앞선 8회말 고우석이 마운드에 올랐다.

고우석은 첫 타자 엠마누엘 로드리게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테너 스코벨과 제이크 루커를 뜬공으로 처리하며 삼자범퇴로 이닝을 끝냈다.

지난해까지 KBO리그 LG 트윈스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고우석은 지난 1월 샌디에이고와 계약하며 MLB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시범경기에서 6차례 등판해 평균자책점 12.60으로 난조를 보였고 결국 개박 로스타(출전 선수 명단) 진입에 실패했다.

빅리그 승격을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고우석은 더블A에서 7경기에 등판해 9이닝을 투구하며 2패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6.00의 성적을 냈다.



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3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퍼스필드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 1회 초 파울을 치고 있다. 김하성은 이후 내야안타로 진루했다.

이정후, 메츠전 4타수 무안타...13경기 연속 출루 마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6)의 출루 행진이 중단됐다.

이정후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를 작성했다.

이날 한 차례도 출루하지 못한 이정후는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13에서 마감했다. 이정

후의 시즌 타율은 0.284에서 0.272로 내려갔고, 출루율은 0.343에서 0.330으로 떨어졌다.

샌프란시스코(12승 13패)는 선발 투수 로건 웨의 8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메츠(12승 11패)를 5-1로 제압했다.

2연승을 달성한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함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공동 3위에 자리했다.

뉴시스

13일 만에 멀티히트 김하성, 2안타 1도루 1득점 활약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3경기 만에 안타를 날렸다. 동시에 13일 만에 멀티히트를 쳐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김하성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퍼스필드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유격수 겸 5번타자로 선발출전, 2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를 기록중이다.

지난 11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4타수 2안타를 쳤던 김하성은 13일 만에 멀티히트를 기록

했다. 시즌 타율은 0.228로 높아졌고, 15득점째를 기록했다.

김하성은 2-0으로 앞선 1회초 1사 1루에서 폴로라도 선발 라이언 펠트너의 6구째 95.2마일짜리 낮은 싱커를 공략해 3루수 방면 내야안타를 때려냈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때려냈다. 김하성은 2-1로 앞선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펠트너의 한가운데로 몰린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전안타를 날렸다.